

# “경제난 해소 위해 불자들이 앞장설 것”

## 종단협, 경제난 극복·국민화합 기원대법회 봉행

경제난 극복 발원을 위한 불교계 사부대중이 원력을 모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는 3월 18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경제난 극복·국민화합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을 주제로 봉행된 이번 기원대법회는 전세계적 경제 한파에 따라 IMF 구제금융 당시보다 더 살기 어렵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봉행돼 더욱 관심을 모았다. 구제금융 당시 불교계가 합심해 1998년 4~11월 봉행한 ‘국난극복 순회법회’가 지속적인 정진으로 국민의지 결집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평가받은 것도 행사를 열게 된 원인의 하나다.

이번 법회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지관 스님 등 각 종단 총무원장스님, 정·관계 불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했다. 지관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경제 어려움에 따른 사회적 고통해소에 불자들이 앞장서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을 실천하고, 계층간 소통과 상생 화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부처님께서 자비의 샘물은 퍼낼수록 더 솟아나고, 은혜는 베풀수록 공덕이 더 커진다고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않고 어려울수록 베풀고 나누는 대승보살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앞두고 국난극복 기원을 위한 법회에 참가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불교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눔운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문제 등 현재의 어려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역사적으로 불교는 호국불교로서 국난극복에 앞장서 온 만큼 현재의 어려움 극복



3월 18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봉행된 ‘경제난 극복·국민화합 기원대법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하고 있다.

에도 앞장서 주시면 정부도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식전 행사로 연등축제 홍보영상을 방영하고, 자비나눔 모금도 진행했다. 종단협은 법회 전 약정한 성금 5000

만원과 이번 기원대법회에서 모금된 1억761만1630원(약정금 포함, 총 113개 사찰 161명 동참을) 제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글=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사진=박재민 기자 waniholo@hanmail.net

## 태백주민들에게 생수 전달

### 천태종 복지재단, 태백시청과 가뭄극복 행사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강원 태백 지역 5만여 주민들은 세수와 땀에는 물론이고 먹을 물조차 없어 고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이사 정산)과 태백 등광사(주지 자운)는 3월 13일 태백시에 태백 주민들을 위해 2ℓ 생수 1만 병을 전달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전달식에서 자운 스님은 “태백에 와보니 언론에서 접했던 것보다도 지역주민의 고통이 훨씬 심각해서 도울 방법을 찾다가 천태종 복지재단과 함께 생수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리런 반가운 복비가 내리는 것 같다”며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유금선 후원홍보팀장은 “태백지역이 몇 차례 내린 봄비로 식수 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도가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생수 전달식에는 천태종 총무국장 김수 스님, 등광사 주지 자운 스님, 천태종복지재단 김영사무원장, 박종기 태백시장, 등광사 신도회 우성룡 부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신도들이 참석했다. (02873-3405 이너는 기자

## 경제살리기 기원 법회 봉행

### (사)한국불교정토종 종단 임원취임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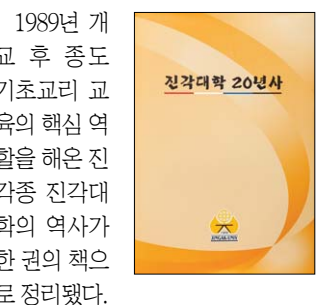
한국불교정토종이 3월 16일 봉행한 ‘국태민안과 경제살리기 기원 및 인천세계도시축전 시축전 기원대법회’.

(사)한국불교정토종(총무원장 무각)은 3월 16일 인천 라마다호텔에서 ‘국태민안과 경제살리기 기원 및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각 종단 종정스님과 총무원장스님, 안상수 인천시장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법회에서는 이사장 지산 스님, 종정 율호 스님, 부종정 해심·각호 스님, 총무원장 무각 스님의 취임식도 함께 진행했다. 정토종 이사장 지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인천시는 물론 한국경제가 날로 발전해 온 국민이 모두 잘 살 수 있길 발원한다”며 “앞으로 정토종은 종세 확장과 종단 발전을

통해 한국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정토종 3세 종정으로 취임한 율호 스님도 법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종단 최고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종지 중풍 선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 종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생어정찰(生於淨刹)을 실현해 부처님께서 서원하신 중생 구제의 대원력이 원만 회향될 수 있도록 발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정토종은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을 기원하며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불우이웃돕기 백미(2000kg)를 전달했다. 김진성 기자

## 20년 맞은 진각대학의 역사 한 권에...

### ‘진각대학 20년사’ 발간...마지막 졸업식 봉행



1989년 개교 후 종교 기초교리 교육의 핵심 역할을 해온 진각대학의 역사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됐다. 진각종(총무원장 회정)은 3월 13일 진각대학(학장 경정) 개교 20주년을 맞아 <진각대학 20년사(사진)>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된 <진각대학 20년사>는 진각대학의 역사를 책과 DVD 2장에 고스란히 담았다. 제1편 ‘진각대학 설립과 발전’에서는 진각대학 설립 이전과 초·중·후기 학제 및 주요 교육활동을, 제2편 ‘밀교신문에 비친 진각대학 20년’에서는 밀교신문에 게재된 진각대학의 활동사항을 요약했다. 또한 제3편 ‘진각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중원종법규정을



3월 13일 진각종 총무원에서 봉행된 제19회 진각대학 졸업식.

비롯한 역대 교육과정과 학생 현황 등을 정리했다. 한편, 진각대학은 3월 13일 총무원 대회의실에서 진각대학 마지막 졸업식을 봉행했다. 진각대학은 2007년 8월 법규를 개정, 명칭을 변경하고 2008년 첫 입학생부터 진각대학원으로 신입생을 받고 있다. 김진성 기자

이번 졸업식에서는 은혜지 전수(북전심인당 교화) 등 12명이 졸업하고 △총인상=여원성 전수(실각심인당 교화) △진각대학장상=심인주 처무 △총리원장상=선운 정사(실각심인당 주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 “수행하는 불자 인재 양성할 것”

### 천태종 제1회 분당금강불교대학 입학식 개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불교인재 양성에 힘써 온 천태종 금강불교대학(학장 율도, 이하 금불대)이 여섯 번째 대학을 개교했다. 천태종은 3월 14일 분당 대광사 대불보전에서 제1회 분당금불대 입학식을 봉행하고, 학생 오리엔테이션, 개별 면담 등 개교 행사를 진행했다. 분당금불대는 율도 스님(대광사 주지)이 진행한 ‘기축년 정초 특별 철야정진(3·7기도)’에 동참했던 불교교리의 이해를 바라는 분당 지역 불자들의 희망에 따라 개교했다. 입학식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여섯 번째 금불대가 분당에 설립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큰 결단을 내린 율도 스님과 큰 용기를 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대광사가 앞으로 이 지역 불교를 이끄는 진리의 전당이 되길 기원한다”며 “배움과 실천을 함께 하는 불자로서 자아 완성을

이루고, 부처님의 사자로 당당히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분당금불대학장 율도 스님도 “분당 지역에는 젊은 인재들이 많은 만큼 금불대 개교를 통해 수행하는 불자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시간을 쪼개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1회 입학생인 만큼 자긍심과 포부를 갖고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분당금불대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초발심자경문>과 불교학개론, <법화경>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학장 율도 스님과 권기중 원장(원각불교 사상연구원), 이기운 연구교수(동국대)가 맡을 예정이다. 한편 금불대는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의 뜻에 따라 설립돼 1987년 서울금불대 개교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울산, 춘천 지역에 서 천태종 불교인재 양성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대구 정경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미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리밀 만월등(육바리밀 주름등), 팔각봉촉접등, 종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암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참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